

“준비 잘했다...실전 감각 끌어올리는데 주력”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이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올해 첫 자체 연습경기 후 선수단과 미팅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올해 첫 연습경기 치르는 윌리엄스 KIA 감독

“꾸준한 모습 보여주는 게 관건...젊은 선수들 성장 기대”
“양현종 빈자리, 남은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줄 거라 믿어”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은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 시즌 첫 연습경기를 앞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비시즌 동안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한다. 연습경기를 통해 부상 없이 선수들

의 실전 경기감각을 서서히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겠다”며 “비시즌과 스프링 캠프, 경기에서 준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실전감각에 익숙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준비된 일정에 맞춰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투입, 투수들의 경우 이닝을 채울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야수들의 경우 시범경기 전까지 최소 40타석 이상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양현종의 공백이 크지만 남은 선수들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맘 흘린 선수들이 빈 자리를 충분히 메워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 KIA의 성공에 대한 선제조건으로 “꾸준하고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며 “스프링 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보며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호령의 스윙 변화 적은 과정과 지난해 풀타임 유격수를 소화한 박찬호의 발전 모습, 1루수로 변신한 터커의 좋은 활약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마지막으로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팬들을 경기장에서 빨리 만나길 바라며 더 좋은 경기 모습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이날 오후 유니폼 색깔에 맞춰 블랙티와 화이트티로 나눠 자체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박희중 기자

올렉 ‘행운의 결승골’ 전남, 경남 꺾고 첫 승 신고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경남FC를 꺾고 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전남은 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2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올렉의 행운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10분 만에 전남이 균형을 깨뜨렸다.

이후권의 패스를 받은 올렉이 경남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채광훈을 한번 제친 뒤 오른쪽으로 감아 찼고, 공이 채광훈의 다리에 맞아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경남은 전남의 좌우 측면을 흔들며 으르면서 찬스를 노려봤지만, 상대의 촘촘한 수비를 뚫을 만큼 날카롭지는 못했다. 후반 23분 백성동의 프리킥은 골대를 벗어나고, 후반 37분 황일수의 중거리 슛은 골키퍼 품에 안기면서 결국 영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광주FC 김중우가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홈 개막전에서 슛을 날리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졌지만 희망을 봤다’

‘우승 후보’ 울산 상대 홈 개막전...투혼 불구 0대1 석패
커보인 ‘해결사’ 펠리페 빈자리, 결정적인 한방 아쉬워



하나원큐 K리그1 2021 2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광주는 우승 후보 울산 현대를 상대로 첫 승에 대한 투혼을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경기 초반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엄원상을 원톱으로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선 광주는 짜임새 있는 수비

와 빠른 역습으로 울산을 압박했다.

광주는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볼을 울산 윤보상이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윤보상의 슈팅세이프

로 막아냈다. 곧바로 나선 역습에서 이으뜸의 슈팅이 막혔고 이어진 프리킥에서도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전반 37분 광주가 선제골을 내줬다.

반격에 나선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 엄원상의 회심의 슈팅이 골대를 빗나갔고 이찬동의 슈팅도 울산 수비에 막히며 0대1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 공세에 나선 광주는 여러차례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박희중 기자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대 선수단이 시상식이 끝난 후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축구 ‘정상에 서다’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8년 만에 ‘전국 최강’ 탈환

광주대가 대학축구 전국 최강자를 가리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2013년 팀 창단 5년 만에 우승을 일궈낸 이후 8년 만이다.

광주대는 지난 6일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바다의 땅 통영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대1로 꺾고 전국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광주대는 예선경기에서 축구 강호로 손꼽히는 중앙대와 고려대를 격파하고 조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승선대와의 16강 경기에서 1대0 승리한 광주대는 8강에서 한남대(4-0), 준결승에서 청주대(2-1)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광주대는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손쉽게 풀어갔다. 설현진(3년)이 상대방 수비수들을 틈타 골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선제 골을 넣은 뒤에도 공

격을 멈추지 않으며 전반 31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박규민(2년)이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올라온 김명순(3년)의 크로스를 가볍게 골로 연결시켰다.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친 광주대는 후반 3분 설현진의 두 번째 골과 후반 20분 김명순의 득점으로 4대0, 일방적인 경기를 펼쳐나갔다.

후반 30분 제주국제대에 한 골을 내렸지만 후반 35분 안재선(4년)의 멋진 오른발 감아 차기 골로 대승의 마 침표를 찍었다.

이승원 감독은 “광주대 감독 부임 후, 5년 만에 우승을 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응원이 딱 사라졌다”면서 “선수들이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김태민이 대회 최우수선수상, 득점상은 5골을 기록한 박규민이 득점상, 김재홍(4년)이 수비상을 수상했다. 이승원 감독과 정승은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박희중 기자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 3일 영주테니스장에서 훈련 중인 한국도로공사 테니스팀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재경선수단 사기 진작

道公 테니스팀·체육진흥공단 자전거팀 훈련장 방문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광주 소속 재경선수단인 한국도로공사 테니스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전거팀을 잇따라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7일 “최근 영주테니스장에서 훈련 중인 도로공사 테니스팀(감독 최중현)과 전국대회에 출전 중인 체육진흥공단 자전거팀(감독 이병일)을 각각 방문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테니스팀은 지난달 말부터 광주에서 훈련했다.

광주에서 훈련을 마친 선수단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전용 테니스장으로 옮겨 훈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강진에서 열린 ‘제68회 3·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 자전거팀

이주미를 비롯한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 이후 경남 밀양 일원에서 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재경선수단 격려를 비롯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광주 소속 선수들의 격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경기와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사업’ 18명 배정

전년비 3명 늘어

전남도체육회가 ‘2021년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 사업’에서 18명의 인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2021년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3명이 증원된 18명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체육회, 영암군체육회가 지난해 1명에서 2명이 신규로 배정되면서 각각 3명을 확보했고, 고흥군체육회도 1명의 신규인원이 늘어나면서 2명이 배치됐으며, 여수시체육회도 신규 1명을 확보했다.

이밖에 보성, 강진, 해남, 장흥군 체육회에 1명씩 배정됐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체육 관련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시·도·시·군체육회의 행정력을 강화해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포함)에서 정규직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대한체육회가 인건비 일부(최대 50%)를 보조한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사업은 시·군체육회의 행정력을 높이는 데없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해 시·군체육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며 “앞으로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클럽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